



[마켓] 신세계 백화점-이마트 탄탄한 '남매경영' 08



[유통] 식품업계 프리미엄 아이스크림 잇따라 선택 니



이른둥이에 새 삶, 체육유망주엔 꿈 교보생명의 나눔 숨결, 활짝 핀 '희망 한국'

살맛나는 세상 이야기

85 교보생명

이른둥이 치료비 지원 사업
자발적 모금으로 2392명 살려

이상화·심석희·박태환 선수 등
교보 꿈나무 체육대회 거처가
350여 명의 국가대표 선수 배출

여성 가장들에게 일자리 제공
저소득층 환자 간병서비스도

교보생명은 생명보험사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 건강, 돈, 지식 등 결핍으로 인한 삶의 역경을 극복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짜임새 있고 차별화된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고 있다. 관련 분야 전문성과 노하우를 지닌 비영리단체와 파트너십을 통해 지속가능한 사회공헌모델을 만들고 있다.

특히 저소득 가정, 미숙아, 여성 가장 외 체육인 등 지원을 통해 이들의 역량 개발을 돕고 또 다양한 사회적 일자리를 마련해 스스로 역경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 사회적으로 나눔이 재생산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교보생명은 이 같은 일련의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기존의 기업사회공헌 방식에 일대 변화를 시도하여 새로운 CSR(기업의 사회적 책임) 실천 모델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교보생명 특유의 짜임새 있고 사회적 가치를 지속적으로 창출하는 활동들은 기업 사회공헌활동의 우수 모델로 평가 받고 있다"고 말했다.

◆ 다숨이 작은 숨결 살리기

교보생명의 대표적인 사회공헌사례로는 먼저 이른둥이(미숙아)에게 치료비를 지원하는 '다숨이 작은 숨결 살리기'를 들 수 있다.

교보생명은 아름다운재단과 함께 지난 2004년부터 다숨이 작은 숨결살리기 사업을 펼치고 있다. 세상에 조금 먼저 태어난 이른둥이들이 건강을 회복하여 소중한 생명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고 경제적·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가정을 지원한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입원치료비는 물론 재활치료비(만 6세 이하)를 이른둥이 출산가정에 지원하고 있다"며 "본인부담 병원비의 70%,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이른둥이 지원사업에 쓰이는 비용은 교보생명 재무설계사(FP)들이 자발적으로 실시일반 모금하면 여기에 회사 지원금을 보태 지원하는 방식으로 모아진다. 매달 4000명이 넘는 재무설계사들이 모금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렇게 모인 금액으로 지금까지 2392명의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었다는 설명이다.



- 1 지난 2016년 다숨이 희망산타 행사에서 교보생명 재무설계사·임직원, 일반시민 등 200여 명의 희망산타들이 이른둥이를 응원하며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 2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오른쪽)이 지난 2015년 '꿈꾸는 책 나눔 자원봉사활동'에서 한 아이에게 책을 읽어주고 있다.
- 3 지난해 8월 전북 전주시 전주화산체육관 빙상장에서 열린 2017 교보생명컵 꿈나무체육대회 빙상 경기에 참가한 초등학교 꿈나무들이 경쟁을 펼치고 있다.
- 4 지난 2015년 교보생명 다숨이 글로벌 봉사단이 베트남 희망나눔 자원봉사 직후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 /교보생명

교보생명 관계자는 "민간최초의 이른둥이 지원사업으로 이른둥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건강한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 교보생명컵 꿈나무 체육대회

교보생명은 지난 30여 년 동안 한국 스포츠를 이끌어갈 체육 유망주를 발굴·육성하는 데에도 앞장 서고 있다.

'교보생명컵 꿈나무 체육대회'는 민간에서 열리는 국내 유일의 유소년 전국 종합체육대회다. 교보생명은 지난 1985년부터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육상, 수영, 빙상, 체조 등 7개 기초종목에 4000여 명의 초등학교생이 참가하는 전국대회를 열고 있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재정이여의치 않은 선수들도 대회에 참가해 마음껏 기량을 펼칠 수 있도록 모든 선수단에게 교통비와 숙식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우수 선수와 학교에는 장학금도 준다"고 전했다.

지금까지 교보생명컵 꿈나무 체육대회를 거쳐간 어린 선수는 13만명 수준. 이 가운데 350여 명의 국가대표 선수를 배출하기도 했다. 스피드스케이팅 500m에서 올림픽 금메달을 2회 연속 획득한 이상화를 비롯 유도의 최민호·김재범, 체조의 양학선·양태영, 수영의 박태환, 탁구의 유승민·오상은, 육상의 이진일·이진택, 쇼트트랙의 최민정·심석희·박승희, 스피드스케이팅 이승훈 선수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이 올림픽과 아시안 게임에서 획득한 메달 수만해도 150여 개에 달한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교보생명의 꿈나무 후원은 다른 기업의 빅스타 후원이나 프로구단 운영과 달리 비인기 종목에 집중돼 있고 장래가 불확실한 초등학교 유망주에 대한 지원이라는 점에서 공익적 성격이 강하다"며 "체육계에서는 이러한 후원방식이 기초종목을 활성화시키고 저변을 넓혀 스포츠 발전의 디딤돌이 되

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 교보 다숨이재단

교보생명은 이 외 대한민국 사회적 기업 1호인 '다숨이재단'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 2003년 시작한 '교보 다숨이 간병 봉사단'을 모태로 한다.

교보 다숨이 간병 봉사단은 저소득층 환자에게 무료 간병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회복을 돕고 일자리가 필요한 취약계층 여성 가장들에게는 일자리 제공을 통해 경제적 자립을 돕는다. 지난 2007년 10월 교보다숨이간병봉사단은 다숨이재단으로 전환되어 같은 해 11월 정부로부터 사회적기업 1호 인증을 받았다.

한편 교보생명은 대산농촌재단, 대산문화재단, 교보교육재단 등 3개의 공익재단 운영과 함께 국민체육진흥, 문화예술 지원사업 등 다양한 공익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